朝鮮日報
發行所 서울市太平路一街 朝鮮日報社

反民該當議員問題로 '秘密會議'에서 討議

國會는 昨十九日로 今番會期가 滿了되게되어 同日 議長으로부터 會期를 再延長하기로 하고……

自律的統一念願

韓委에 63議員이 進言

國會內一部議員이 和平統一과 外軍撤退를 要請하는……

議案日程等決定

申議長、時間變更報告

國會는 十九日로서 定例會期를 마치게되었으나 重要案件을 審議하기 爲하여 四十日間延期할 것을 決定하고……

資本稅令等 國會에 廻附

鐵道運賃臨時措置法案上程豫定

北濟州選擧 金公報處長發表

和平對案을作成

中共의 六個條件受諾

員成 委作 人서 十會

南極洋捕鯨權 林長官이 主張

援助物資供給의原則

臨時外資總局에서發表

對韓輸送에 E·C·A 百萬弗

何將軍組閣完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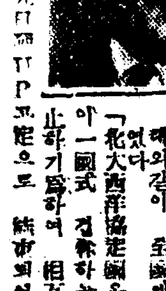
日占領費 卅億弗

二十年間의集團防衛 西歐는安全保障地帶

各國首都서北大西洋條約案發表

協定으로結束

애國務長官、條約解說



安全保障에前進

베英外相、下院서說明

中共條約非難

地域的協定

리事務總長談

丁抹政府서 大西洋條約討議

北大西洋條約案全文

【런던十九日發AFP合同】十八日발표된 北大西洋條約案全文은 아래와같다

前文 （一） 本條約의 參加諸國은 「유엔」 憲章의 目的과 原則에 忠實하고 全世界人民과 모든政府와 平和的으로 共存할것을 願한다는것을 再次闡明한다

（二） 參加諸國은 自由天賦의人權 民主主義原則에 基한 모든人民의文化 個人의自由及法治主義를 擁護할것을 決意한다

（三） 參加諸國은 北大西洋地域의 安定과 福祉를 促進시킨다

（四） 當事諸國은 平和及治安의 維持를 爲한 集團防衛에 모든努力을 統一하기로 決意한다

（五） 이러한 目的下에 參加諸國은 北大西洋條約에 參加하기로 同意한다

第一條 參加諸國은 「유엔」 憲章에 規定된바와 같이……

蘇英係條約廢棄?

社說

언더우드夫人의慘變

合同通信社編輯部長
薛國煥著 日本紀行

지난二月韓國記者團으로서 正式最初로戰後日本에入國하여 月餘에걸친 日本視察에서 일우어진이글을同胞앞에紹介하다 果然日本은敗戰後 무엇을하고있나 世界二大思潮의움지김속에서 그들은 다시금었더한形態의 再起를꿈꾸고있는가 四十年間에맺었던 怨恨은 하나도풀지못한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들의動靜을監視하여 制裁할權利를가져야할것이다 三千萬同胞는우리의將來를 위하여 오늘의 日本을注視하며 工夫하자

서울市鍾路區壽松洞108 首都文化社刊 電光(3)3267 振替서울33134 四六版170頁 定價300圓 三千萬國民必讀의書遂刊行

美國마映畵社提供
西部活劇王의 짹·혹씨 主演
名馬…마이나·마이트特演
不法의正義 第1公開
《OUTLAW JUSTICE》
3月22日부터 首都劇場에서 封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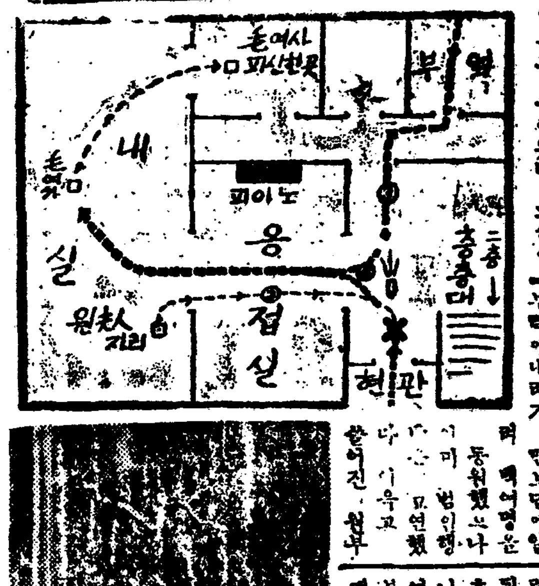
西部大活劇映畵
無比無敵의 짹·혹씨 主演
名馬…마이나·마이트特演
驛馬 第2公開
《VIA PONY EXPRESS》
서울映畵株式會社 外國映畵部直輸入 提供

三篇直輸入荷
活劇大王의 짹·혹씨 主演
名馬…마이나·마이트特演
黃金 第3公開
《GOLD》
（一名 西部의快男兒）
近日公開

元漢慶博士夫人慘變

延大뒷산自宅에서 怪漢이拳銃으로

犯人搜査中、葬儀는二十四日



'눈물이글성'

그래도沈着한元氏모습

目擊人李女史談

이땅에三代를바친 「언」家의功績

—毛允淑氏談—

國際「로타리」俱樂部에韓國加入

私設無線局의 一般設置許可

團體動靜

申議長報告는 反民者全無는아니다

金若水氏外委서重大發言

處斷좀더嚴하게

權總長謀利輩等處分에示達

特殊行動隊長 韓昌洙等五名檢擧

懲役二年求刑

製麻社長丁金成에

쌀搬入一部解禁

責任다한農家의糧穀處分도自由

臨時緊急措置法 閣議를通過

人民軍또來襲

開城附近서完全擊退

劉徹大邱에押送

大統領弔辭

來日온春分

내일이벌서 춘분이다 그러고보니 어느듯 할가리 새투리기에 농촌이 제 바른 시절이다 벌서 시장에는「생추」「쑥갓」「물쑥」등이 등장하여 춘분을 더한층 장식하고있다 (사진은 할가리와 새투리는광경=어제교외에서)

어린이

집넌공부

임원호

한석봉(韓石峰) 선생이 십년을 기약하고 글공부길을 떠났읍니다. 깊은산중 어느 글방을 찾아가 공부를 할재 그 재주 보통이 아녔읍니다. 한자를 배우면 열자를 알고 열자를 배우면 글자를 알매 몇해가 다 안가서 가진책을 다 배워 외이어 그는 잘이 환한것같았읍니다. 집넌공부 할것없다 기약은 못 채우고 집을 찾아 돌아왔읍니다.

아들의 성공을빌며 떡장사로 세월을 보내시는 어머니 기약이 차기전에 돌아 온 아들을 반기시지 않고 이날밤에 서로 내기를 하셨읍니다. 등잔불을 끄고 깜깜한 방에서 어머니는 떡을 쓸으시고 아들은 글씨를 쓰고. 얼마 만에불을 켜고 보니 어머니의 쓸으신떡 조각은 크고 작은것 없이 얼게 스무개가 똑골다도 아들의 쓴 글씨는 획이고르지 않고 우물비뚤 망칙했읍니다.

그도 그럴것이 어머니께서는 홀어머니 살림에 아들을 기르시노라고십넌을 넘어 떡 장사로 지내신 터입니다. 지나간십년 동안에 익숙해진 솜씨라서 어두운 곳에서나 밝은 곳에서나 돌아가는 손길이 마찬가지였읍니다 그러하며 선생은 아직수만이 못났던것입니다. 그제야 철 없음과 참을성 없음을 뉘우치고 그 길로 돌아가 집넌을 채우고 나니 문장과 아울러 명필로 선생의 이름은길이 세상에 빛났읍니다.

마당 가에나 그밖 어느 손 쉬운 곳에다 작은 솔나무 한구루를 심어놓고 꼭꼭 하루에 한번씩 걸르지 말고 뛰어 넘는다 해보십시요. 잔단구말―한해 두해―이렇듯 쭘임 없이 연달아 뛰어넘고보면 어이 될것입니까? 『집넌』하고 햇수를 꼽는 날에는 그 나무가 길길이 자랄것입니다. 그래도 그날에 그 나무키를 걱정 없이 훌훌 뛰어 넘는답니다. 이처럼십년이라는 세월은 조화가 있어 무슨 일이고 십년간 연달아 걸르지 말고 해 놓고보면 수가 나고 성공이 있는법입니다

동요

'전선줄정거장'

홍은순

전보대의 전선줄은 정거장예요
오고가는 참새들이 모여앉아서
재재재재 지꺼리다 헤진답니다.

×

전보대의 전선줄은 정거장예요
江南가는 제비들이 함께만나서
비비배배 의논하고 떠난답니다

애기동화 그림책

이순도

기순이는 일학년생 입니다 일학년에서도 제일 꼬마 입니다.

그런데 오늘 학교에 갔다가 그림만화책을 잊어버렸읍니다.

걸상에는 곰아저씨가 아주 멋있게 서있고 참 재미있는 책이요 그렇게 재미있는 책을 글쎄 옥히가 갖이고 있지않았겠에요.

그래서 기순이는 옥히를 보고 제책이라고 그랬드니 옥히가 되레 남의 책을 제것이랜다고 막 도둑년이래는군요.

학교에서 오는 길에도 생각할수록 분하고 어굴해서 작고만 눈물이 나왔에요. 아버지가 아가를 잘봐주면 그림책을 사주신다고 그래서가 때문에 날마다 학교에서 도라 오기만하면 아가를 업어주었지요. 그리고 심부름도 언니보다 더하고――그렇게 해서 사받은 그림책을 옥히에게 빽끼 다니요.

집에 들어서자가 기순이는와― 하고우름이 터져 나왔읍니다.

"애가 웬일이야?"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분하고 슬퍼 젔습니다.

『너 왜우니 응? 싸왔니? 너머첬니?』

암만 어머니가 물어 봐도 소용 없읍니다.

기순이는 방으로 들어가자 그냥 가방을 내동댕이쳤읍니다. 아 그때입니다.

『언니― 이거』

하고 아가가 덤비지 않았겠에요. 그런데 아가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책이 었읍니다. 그렇지만 이걸 어째요? 학교간 다음에 아가가 모두 찢어 놨군요.

기순이는 이번에 정말 울음이 터져 버렸읍니다. 책이 찢어진것 보다 옥히에게 더 미안했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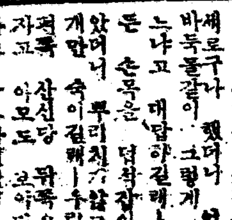
『어린이날』기념 아동작품모집

題名=自由 應募資格=國民學校在學生에限함 賞金全額=五萬圓 外優秀作品을많이낸 學校에 學校賞 期日=來四月二十日 發表=五月五日 主催 新聞

短篇小說 山族 (14)

李揆元 作 金熊超 畫

韓昌洋行 寫眞機와材料 서울鍾路三街三 電光⑨9326



元漢慶博士夫人本大學校教授에델‧언더우드女史於三月十七日午後三時逝去玆에訃遠近
一、葬禮式 三月二十二日午後一時半 於西大門一街新門內禮拜堂
一、葬地 楊花渡墓地
檀紀四二八二年三月十七日 延禧大學校總長 白樂濬

故鶴嵓先生追悼公演
全國國樂人總參劃의 民族音樂의大豪華譜
國樂大祭典
20日부터3日間 市公館
主催 國樂院內鶴嵓先生記念會

問題의映畫드디여開封되다
우리들은 꼭보아야할 映畫
黎明
建設映畫社第二回作品 原作…崔永秀 演出…安鍾相 撮影…鄭瀅模
男女老少不拘하고보실映畫
同時公演 新新輕音樂團
今方上映中 首都劇場

中國映畫 世界의名作 探偵王 鐵民 (原名霧翠馬)
香港南奧影業公司製作
20日부터 封切 明洞劇場

公告 韓國古美術協會 理事長 李英燮
檀紀四二八二年三月十八日

藥草種苗 買賣斡旋 枸杞子苗、山茱萸苗、連翹苗、玄參苗、唐業、苗等急讓 三山藥業社 電話東局二一六六二番

謹告 朝日釀造株式會社 檀紀四二八二年三月二十日 仁川府仙花洞八番地 業者各位 貴下

痔疾專門 美明宣肛門科

高麗洋裝專門新入生增募 校舍擴張 學級增設 本科晝夜各五〇名 (本校特色)夜間自家發電特設 詳細來問 마감三月末